

쓰레기 배출방법(세키젠(関前)지구)

이마바리시(今治市) 세키젠(関前村)에서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 타지않는 쓰레기, 대형쓰레기, 자원물, 유해 쓰레기, 위험 쓰레기에 정확히 분별하고, 각각 정한 장소와 시간에, 결정된 방법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을 지키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는 수집되지 않고, 악취를 풍기거나,또 쓰레기 집적소를 청소할 수 없거나고 근처이웃에게 대단히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쓰레기 배출방법」을 참고에, 보기 시작하기의 물을 지키도록 주의합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마바리시(今治市) 관청 세키젠(関前) 출장소주민복지과 (Tel0897-88-2111)까지, 일본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종류	수집 방법	수집 회수	수집 용기			내놓을 수 있는 것·낼 때의 주의
			종류	색	크기·값	
타는 쓰레기	스테이션 방식 자치회(살고 있는 지역)마다 집적소, 수집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근처이웃이나 세키젠(関前) 출장소주민복지과 (0897-88-2111)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주 2회	구레시윳시 지정	적색	특대(10장 세트450엔) 대(10장 세트400엔) 특중(10장 세트300엔) 중(10장 세트200엔) 소(10장 세트100엔) ・세키젠무라(関前村)내의 슈퍼, 각종상점등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내놓을 수 있는 것) ・부엌 쓰레기, 휴지, 초목, 목제품류, 재이용할 수 없는 천류, 가죽제품류 등 ・음식품용이외의 페트병, 기름 성분이 많은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페트병, 랩류, 폴리에틸렌 봉지류, 플라스틱류, 트레이류, 컵류, 인터넷류, 튜브류, 고무 제품류, 발포스티롤 등 (낼 때의 주의) ・자원 쓰레기는 내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자주(잘) 뺀다.
타지않는 쓰레기	스테이션 방식 자치회(살고 있는 지역)마다 집적소, 수집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근처이웃이나 세키젠(関前) 출장소주민복지과 (0897-88-2111)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2주 1회	쓰레기 봉투	청색	대(10장 세트300엔) 중(10장 세트200엔) 소(10장 세트100엔) ・세키젠(関前村)내의 슈퍼, 각종상점등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내놓을 수 있는 것) ・음식품용이외의 병류·통류, 금속류, 도자기류, 유리류, 소형가전제품※ 등 (낼 때의 주의) ・자원 쓰레기는 내지 않는다. ・스프레이 통, 카세트 봄베, 1회용 라이터는 내용을 다 쓰고나서 위험 쓰레기로 낸다
대형쓰레기	스테이션 방식	월 1회	품목에 따른 금액의 대형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하고, 대형쓰레기에 붙이고 있기 시작한다.			(내놓을 수 있는 것) ・가구, 가전제품※ 등, 대사이즈의 지정 봉투에 넣어서, 봉투의 입을 다물 수 없는 크기의 쓰레기 또는 지정 봉투에 들어가도 들어 올리면 봉투가 찢어지는 것 같은 무거운 쓰레기 (낼 때의 주의) ・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과 PC는, 시에서는 회수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일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세키젠(関前) 출장소주민복지과 (0897-88-2111)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과 PC의 처분에 대해서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과 PC는 시에서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가전판매점에 의뢰해서 처분해 주십시오. 또, PC에 대해서는 제조 메이커에 처분을 의뢰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C3R추진 센터에. Tel.03-5282-7685)

○다음 가전제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요금이 걸립니다.

- 텔레비전(브라운관, 액정, 플라즈마) ... 2,700円정도
- 세탁기 ... 2,500円정도
- 의류건조기 ... 2,500円정도
- 냉장·냉동 고 ... 4,500円정도
- 에어컨 ... 2,600円정도(별도절하료도 걸립니다.)

(모두 별도운반료, 부가세, 절하료 등이 걸립니다.)

자원물	병	무색	스테이션 방식 자치회(살고 있는 지역)마다 집 적소, 수집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본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근처이웃 이나 세키젠(関 前) 출장소주민복 지과 (0897-88- 2111)까지 문의 해 주십시오.	월 2회	전용의 컨테이너에 3색(무색, 다갈색, 기타)에 나누고, 그대로 넣어서 낸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병 (낼 때의 주의) •음식품용의 병이라도 기름 성분이 많은 것은, 타지않는 쓰레기에서 낸다. (예:불고기의 늘어뜨림, 드레싱류등) •내용을 남기지 않고, 캡·뚜껑을 풀고, 안을 가볍게 물로 세척한다. •플라스틱제의 캡·뚜껑은 타는 쓰레기에서 낸다. 금속제의 캡·뚜껑은 타지않는 쓰레기에서 낸다. •맥주 병이나 1말 병등, 씻는것만으로 되풀이해 사용할 수 있는 병은 판매점에 되돌린다.		
		다갈색				그물주머니에 그대로 넣어서 낸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통(애완동물의 먹이나 과자의 캔도 포함한다) (낼 때의 주의) •내용을 남기지 않고 가볍게 물세척을 한다.	
		기타					(내놓을 수 있는 것) •음식품이 들어 있었던 페트병 (낼 때의 주의) •음식품용의 페트병에서도 기름 성분이 많은 것은, 타는 쓰레기에서 낸다. (예:불고기의 늘어뜨림, 드레싱류등) •내용을 남기지 않고, 캡·뚜껑을 풀고, 안을 가볍게 물세척을 한다. •캡·뚜껑은 타는 쓰레기에서 낸다.	
	통				종류마다 끈으로 십자(十字)로 묶고, 그대로 넣어서 낸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신문지·잡지·골판지·종이 팩(안쪽이 눈) (낼 때의 주의) •접어 넣음 광고, 광고지는 신문지와 함께 낸다. •골판지에 부착되어 있는 검 테이프등은, 종이의외의 물건은 떼고 있기 시작한다. •포장지, 종이 상자는 잡지로서 있기 시작한다. •종이 팩은 씻고, 열리고, 말리고나서 낸다. •안쪽이 은색의 종이 팩은 타는 쓰레기로 낸다.		
	페트병					(내놓을 수 있는 것) •의류, 천류, 시트, 타올, 모포, 기모노등 (낼 때의 주의) •숨들어가있거나 털실제품 의류는 타는 쓰레기에서 낸다. •이불이나 카페트는 대형쓰레기에서 낸다.		
	종이류	신문				월 1회	종류마다 전용의 컨테이너(적색)에 그대로 넣어서 낸다.	(낼 때의 주의) •건전지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낸다. •버튼형 전지, 충전식 전지는 내지 않는다. (판매점에 되돌리는 것)
		잡지						(낼 때의 주의) •깨지지 않도록 낸다. •깨진 형광관은, 종지로 싸는등 위험방지를 하고, 타지않는 쓰레기에서 낸다.
		골판지(종이박스)			(낼 때의 주의) •깨지지 않도록 낸다.			
	종이 팩	(낼 때의 주의) •반드시 다 쓰고나서 낸다.						
	천류							
유해쓰레기	건전지		월 1회	종류마다 전용의 컨테이너(적색)에 그대로 넣어서 낸다.	(낼 때의 주의) •반드시 다 쓰고나서 낸다.			
	형광관							
	수은채온계							
위험쓰레기	스프레이 통							
	소형 카세트 봄베							
	1회용 라이터							